

내·외집단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아동의 추론*

Received: October 15, 2023
Revised: November 13, 2023
Accepted: November 20, 2023이서인¹, 진경선²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¹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²교신저자: 진경선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Children's reasoning about intragroup and
intergroup exclusionE-MAIL:
kjin@sungshin.ac.krSeoin Lee¹, Kyong-sun Jin²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 Graduate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²

* 이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s.
2020R1G1A1014507,
2023-00245011).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pyright 2023,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만 7-12세 아동($N = 120$)들이 집단 내 배제와 집단 간 배제에 대하여 어떻게 추론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동들은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한 아동이 자신과 같은 집단(집단 내 배제 조건) 혹은 다른 집단(집단 간 배제 조건)의 두 명의 아동과 협력 활동을 한 후, 두 아동으로부터 다음 협력 활동은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배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아동들의 집단 내 배제 혹은 집단 간 배제에 대한 도덕적 평가, 배제의 대상의 협력성에 대한 추론, 그리고 개입 의지가 평가되었다. 연구 결과, 아동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집단 내 배제와 집단 간 배제 모두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배제 대상의 협력성에 대한 추론의 경우, 만 10-12세 아동들은 집단 간 배제보다 집단 내 배제의 대상이 이전에 덜 협력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또한, 만 10-12세 아동들은 집단 간 배제보다 집단 내 배제에 덜 개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배제의 관찰자로서 만 10-12세 경부터 아동들은 집단 간 배제에 비해 집단 내 배제 상황에서 배제의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더 낮은 개입 의지를 보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회적 배제, 집단 내 배제, 집단 간 배제, 아동, 도덕 발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배제는 흔히 일어나며(Williams, 2009), 아동들도 사회적 배제를 종종 경험하거나 목격하게 된다(Killen & Rutland, 2011). 예를 들어, 아동들은 어떤 아동이 반 친구들로부터 놀이에서 배제되거나, 조별 과제에서 다른 아동들로부터 조원으로 선택받지 못하거나, 혹은 급식실에서 다른 아동들로부터 소외되어 혼자 점심을 먹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때, 타인의 사회적 배제를 목격한 아동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목격자 아동은 배제의 가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여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혹은 배제의 이유가 피해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며, 별다른 개입 없이 배제를 방관할 수도 있다. 배제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Arslan, 2018; Eck et al., 2016)가 배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Buhs et al., 2006; Hawes et al., 2012)을 완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들이 타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해 어떻게 추론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만 7-12세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타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하여 어떻게 추론하고 반응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들이 사회적 배제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었는지 혹은 서로 다른 집단에 소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배제의 동기를 다르게 추론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선행 연구(Rudert et al., 2018)에 따르면, 성인들은 집단 간 배제(intergroup exclusion), 즉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과 다른 집단에 소속된 외집단 개인을 배제할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즉 외집단 소속이기 때문에 배제하였다고 추론하며, 배제

가 가해자의 '악의적 동기(malicious motive)'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반면, 집단 내 배제(intragroup exclusion), 즉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집단의 개인을 배제할 경우, 성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배제의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배제가 가해자의 '처벌적 동기(punitive motive)'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예컨대, 성인들은 배제의 피해자가 배제 이전에 자신과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집단 과제에서 불성실하게 행동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다시 말해, 성인 관찰자는 집단 간 배제보다 집단 내 배제에 대해 피해자의 특성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배제를 더 정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물론 배제에 대한 목격자의 개입을 예측하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나(Chekroun & Brauer, 2002; Fischer et al., 2011; Latané & Darley, 1969), 목격자가 배제의 원인을 피해자의 개인적 속성과 연결할수록 피해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거나 혹은 배제에 개입하려는 동기가 낮아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Rudert et al., 2018).

그렇다면 아동들은 발달 과정에서 언제부터 집단 간 배제에 비해 집단 내 배제에서 배제의 대상에 대해 더 부정적인 추론을 할까? 아동은 언제부터 집단 간 배제에 비해 집단 내 배제에 대해 더 낮은 개입 의지를 나타낼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질문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먼저, 아래에는 사회적 배제를 관찰한 아동들의 반응을 살펴본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학령전기 아동의 반응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어린 아동들도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배제를 탐지할 수 있으며, 이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밝힌 바 있다(Hwang et al., 2017; Marinović et al., 2017; Over & Carpenter, 2009; Park & Jin, 2022; Song et al., 2015). 예를 들어, 4-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Song 외(2015)의 연구에서 배제 조건의 아동들은 한 도형이 여러 도형으로부터 배제당하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였고, 통제 조건의 아동들은 사회적 배제가 포함되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였다. 배제 조건의 아동들은 '그/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니(What happened to him/her)?'라는 실험자의 질문에 대하여 통제 조건의 아동들에 비해 배제와 관련된 기술을 더 많이 하였고, 또한 배제된 주인공의 기분이 더 슬플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자신과 친구를 종이 위에 그리라고 요청받았을 때, 배제 조건의 아동들은 통제 조건의 아동들보다 자신과 친구의 거리를 더 가깝게 그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령전기의 어린 시기부터 아동들이 사회적 배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기분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추론할 수 있고, 또한 도형들의 상호작용으로 단순하고 짧게 묘사된 사회적 배제를 목격하는 경험만으로도 아동의 사회적 소속 욕구(need to belong)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 간 배제와 집단 내 배제에 대한 학령기 아동의 반응

아동들은 일상에서 집단 간 배제와 집단 내 배제를 모두 경험한다(Killen et al., 2011, 2013). 아동의 사회적 세계가 보다 복잡해지고 구조화됨에 따라, 학령기 및 그 이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집단 맥락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초점을 두는 편이다(Killen & Rutland, 2011; Killen et al., 2018). 특히,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집단 간 배제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주목하여, 아동들이 집단 간 배제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하는지 주로 살펴본 바 있다(Brennick & Killen, 2014; Brennick & Romano, 2016; Burkholder et al., 2020; Crystal et al., 2008; Hitti et al., 2014; Killen & Stangor, 2001; Malti et al., 2012; Mulvey et al., 2014). 이러한 연구 결과, 집단을 고려하여 그 맥락 안에서 사회적 배제를 평가하는 능력은 학령기 초기부터 아동기 전반에 걸쳐 보다 정교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Rutland et al., 2022). 예컨대, 7-10세의 학령기 초반 아동들은 집단 맥락과 상관없이 사회적 배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13세 아동들은 성별 혹은 인종과 같은 집단 단서에 기반한 집단 간 배제를 집단 내 배제보다 용인한다(Killen, & Stangor, 2001). 또한, 8-1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은 높은 부(high wealth) 집단의 개인들은 낮은 부(low wealth)의 개인에 비해 더 배제적일 것이라고 예측한다(Burkholder et al., 2020). 즉,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은 자신의 집단을 중심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집단 정체성과 집단 규범의 영향력을 보다 강하게 받게 되며(Abrams et al., 2003; Killen & Rutland, 2011; Killen et al., 2013; Mulvey et al., 2016; Nesdale, 2008), 타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해 추론할 때에도 개인의 집단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하게 된다(Abrams & Rutland, 2008; Rutland & Killen, 2015).

현재까지 소수의 연구만이 집단 간 배제와 더불어 집단 내 배제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Hitti et al., 2014; Yüksel et al., 2021). 연구 결과, 학령기 아동들은 집단 내 배제에 대한 평가 시, 배제의 대상이 집단의 규범을 따

르지 않았을 때 배제를 더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Hitti 외(2014)의 연구에서 9-13세 아동들은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이 내집단(같은 클럽)의 규범을 위반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를 들어, 전통적 규범 위반 조건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클럽 구성원들이 전통적으로 입어온 티셔츠(예, 초록색과 흰색의 클럽 티셔츠)를 입는 것이 그다지 멋지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클럽의 중요 행사에 클럽 티셔츠를 입지 않고 참석하였다. 이후, 클럽의 구성원들은 이 주인공을 클럽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비전통적 규범 위반 조건에서 주인공은 클럽 티셔츠를 입고 왔으나 다른 클럽 구성원들이 클럽 티셔츠를 입고 오지 않았고, 클럽 구성원들은 주인공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동들은 비전통적 규범 위반 상황에서 일어난 배제에 비해 전통적 규범을 위반한 구성원을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시 말해, 9세와 13세 아동들은 개인이 집단의 중요한 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집단 내에서 이 개인을 배제하는 것을 더 허용적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 연구는 소수의 연구만이 집단 내 배제를 다루고 있으며, 연구 결과, 아동들은 개인이 집단의 규범을 지켰다는 정보가 주어질 때 보다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보가 주어질 때 집단 구성원들이 이 개인을 배제하는 것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Hitti et al., 2014).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개인이 집단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채 배제를 목격한다. 성인들은 이와 같이 배제 이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가 애매하게 남겨진 상황에서

집단 간 배제에 비해 집단 내 배제의 경우, 피해자가 배제 이전 배제자들과의 협력 과제에서 덜 협력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함으로써 집단 내 배제를 정당화한다(Rudert et al., 2018).

현재까지 아동들이 발달 과정에서 언제부터 이처럼 집단 내 배제와 집단 간 배제의 대상에 대한 추론에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단 내 배제 및 집단 간 배제를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배제 피해자가 이전 협력 활동에서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 간 배제가 일어난 경우에 비해 동일한 집단 내에서 배제가 발생할 경우, 배제의 피해자가 집단에 덜 협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집단 내 배제가 집단 간 배제에 비해 더 높은 처벌적 동기에 기인한다고 추론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 배제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추론이 아동의 배제 상황에 대한 개입 의지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관련자(Abrams & Killen, 2014) 중에서도 배제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서 아동들이 배제 상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입 의지를 어떻게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추론 및 개입 의지에서 발달적 차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평균 만 8세(7세-9세), 그리고 만 10세(10세-12세)의 연령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집단 간 배제와 집단 내 배제에 대한 아동들의 추론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10대 초반경부터 아동들이 집단 간 배제 혹은

집단 내 배제와 관련된 여러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한다(Burkholder et al., 2020; Nesdale & Lawson, 2011; Yüksel et al.,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8세(7세-9세), 그리고 만 10세(10세-12세)의 집단 간 배제 및 집단 내 배제에 대한 추론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학령기 아동들은 언제부터 집단 간 배제에 비하여 집단 내 배제의 피해자가 배제 이전 배제자들과의 협력 활동에서 덜 협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가?

연구 문제 2. 학령기 아동들은 언제부터 집단 간 배제에 비하여 집단 내 배제에 더 낮은 개입 의지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만 7세-9세 아동 60명(평균 연령 = 8.76세, 표준 편차 = 0.65세, 남아 30명, 여아 30명), 만 10세-12세 아동 60명(평균 연령 = 10.93세, 표준 편차 = 0.63세, 남아 30명, 여아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절반의 아동($n = 60$)은 집단 내 배제 조건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아동($n = 60$)은 집단 간 배제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이외 연구에는 참여하였지만, 보호자 개입($n = 1$) 그리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아동($n = 1$)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참가자 모집은 연구실 홈페이지 게시판, 육아 관련

홈페이지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승인번호: SSWUIRB-2022-010).

연구 자극 및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Zoom)을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험자는 해당 플랫폼의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아동에게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연구 자극을 제시하였다. 아동은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연구에 참여하였고, 실험은 총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숫자 세기 과제

비대면 연구의 특성상 아동의 응답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선택지에 숫자를 부여하고, 아동이 이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선택지는 최대 3개였고, 실험자는 아동에게 1부터 3까지의 숫자를 보여주고, “이건 어떤 숫자야?”라고 질문하였다. 모든 아동은 숫자 세기 과제를 통과하였다.

집단 소개

실험자는 먼저 아동에게 아동과 성별이 동일한 세 명의 등장인물(예, 민지, 수빈, 지현) 및 이들의 소속 집단을 사진과 함께 소개해주었다(그림 1). 집단 내 배제 조건의 아동들은 세 명의 등장인물이 모두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반면(예, “민지, 수빈이, 지현이는 모두 초록 팀이야.”), 집단 간 배제 조건의 아동들은 세 명 중 한 인물은 다른 두 인물과는 다른 집단에 속한다는 이야기(예, “민지와 수빈이는 노랑 팀이고, 지현이는 초록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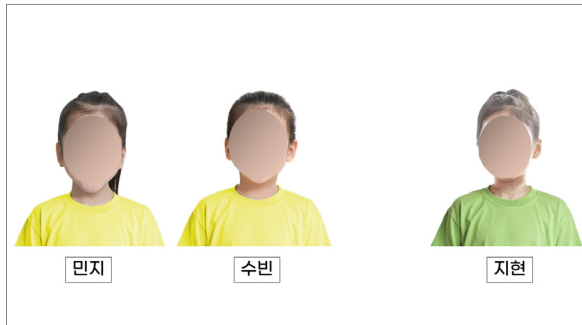


그림 1. 집단 간 배제조건의 집단 소개 장면. 초상권 보호를 위해 본 원고에서는 인물의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였음.



그림 2. 협력 활동 제시 장면

이야.”를 들었다. 등장인물들은 소속 집단(노랑 팀, 초록 팀)에 따라 해당 색상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실험자는 아동들에게 등장인물들이 집단에 따라 동일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예, “노랑 팀인 민지와 수빈이는 미끄럼틀을 좋아하지만, 초록 팀인 지현이는 시소를 좋아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만 5세 아동들도 이와 같은 임의적 단서만으로도 사회적 집단을 잘 구분할 수 있다(Dunham et al., 2011). 조건 간 동일한 등장인물의 사진이 사용되었으며,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건에 따라 등장인물의 티셔츠 색을 조작하였다.

사회적 배제 시나리오

이후 실험자는 두 명의 인물(예, 민지, 수빈)이 한 명의 인물(예, 지현)을 배제하는 시나리오를 아동에게 제시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 세 명의 등장인물은 어제 첫 번째 협력 활동을 함께 수행하였고, 오늘은 내일 진행될 두 번째 협력 활동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 선택하였다(그림 2). 이때 두 명의 인물은 내일 진행될 두 번째 협력 활동에서 한 명을 배제하였다:

“어제 민지, 수빈이, 지현이는 학교에서 다 같이 노력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 교실 청소를 했어. 내일은 민지, 수빈이, 지현이가 다 같이 노력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 블록 쌓기를 해야 한대. 지현이는 블록 쌓기를 할 때 민지, 수빈이랑 다 같이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민지와 수빈이는 지현이랑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그래서 민지와 수빈이는 블록 쌓기를 같이 했지만, 지현이는 같이 하지 못했어.**”

조작 확인

아동이 배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조작 확인 질문을 제시하였다. 먼저 아동에게 배제당하는 인물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예, “이 중에 블록 쌓기를 혼자 하는 친구는 누구야?”).

다음으로 아동이 등장인물들이 속한 집단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인물을 보여주며 질문하였다(예, “민지는 어떤 팀이야?”). 모든 아동은 조작 확인 질문을 통과하였다.

도덕적 평가

도덕적 평가에서는 아동들이 사회적 배제 상황에



그림 3. 배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 장면



그림 4. 아동용 도덕적 평가 척도 예시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지 살펴보았다. 실험자는 아동에게 “민지와 수빈이가 지현이랑 블록 쌓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건 착한 행동인 것 같아, 나쁜 행동인 것 같아?”라고 물으며, 아동용 도덕적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그림 3). 이후, 아동의 응답에 따라 배제 행동이 얼마나 착한 행동인 것 같은지(예, “조금 착한 행동인 것 같아, 착한 행동인 것 같아, 정말 착한 행동인 것 같아?”), 혹은 얼마나 나쁜 행동인 것 같은지(예, “조금 나쁜 행동인 것 같아, 나쁜 행동인 것 같아, 정말 나쁜 행동인 것 같아?”) 각각 다른 3개의 표정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제시하며 물어보았고(그림 4), 모든 아동이 표정 하단의 숫자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아동의 도덕적 평가는 총 6점 척도(1: 정말 나쁜 행동, 6: 정말 착한 행동)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아동용 척도는 아동의 사회도덕발달 연구에서 널리 쓰이며(Dunham et al., 2011; Elenbaas, 2019; Elenbaas & Killen, 2016; Park & Jin, 2022; Rizzo et al., 2016, 2020; Shutts et al., 2016; Yang & Dunham, 2021), 본 연구에 참가한 아동들 중 척도 사용에 어려움을 보인 아동은 없다.

배제 피해자의 협력성에 대한 추론

이후, 실험자는 아동이 배제당한 등장인물(예, 지현)이 배제 이전의 협력 과제에서 얼마나 협력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림으로 제시된 아동용 척도를 사용하여 물어보았다(예, “지현이가 교실 청소를 할 때, 열심히 참여한 것 같아,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 이후 아동의 응답에 따라 피해자가 첫 번째 협력 활동에서 얼마나 열심히 참여한 것 같은지(예, “조금 열심히 참여한 것 같아, 열심히 참여한 것 같아, 정말 열심히 참여한 것 같아?”) 혹은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지(예, “조금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 정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 6점 척도를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입 의지

이후, 아동이 사회적 배제 상황에 개입하여 얼마나 피해자를 돕고 싶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예, “민지와 수빈이는 지현이와 블록 쌓기를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너는 이 상황에서 지현이를 도와주고 싶어 아니면 도와주고 싶지 않아?”). 그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따라 얼마나 도와

주고 싶은지(예, “조금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정말 도와주고 싶어?”) 혹은 얼마나 도와주고 싶지 않은지(예, “조금 도와주고 싶지 않아, 도와주고 싶지 않아, 정말 도와주고 싶지 않아?”) 물어봄으로써 아동의 개입 여부 및 개입 의지의 정도를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후 설명

연구가 끝난 후, 실험자는 아동에게 “사실 내가 들은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 친구들은 나중에 학교에서 다같이 재미있게 놀았대”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사회적 배제 상황의 이야기로 인해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결 과

도덕적 평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아동들의 도덕적 평가 점수에 대한 연령 집단(7-9세, 10-12세)과 조건(집단 내 배제, 집단 간 배제)의 2 x 2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116) \leq 2.06, ps \geq .154, \eta_p^2 \leq 0.02$.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연령 집단 그리고 조건에 관계없이 사회적 배제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를 내렸음을 보여준다. 척도의 중앙값(3.5)과 비교한 단일표본 t-검정 결과(그림 5), 각 연령 집단의 아동들은 각 조건에서 모두 배제 행동을 중앙값보다 유의하게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7-9세 집단 내 배제 조건: $M = 1.77, SD = 0.68, t(29) = -13.98, p < .001$; 7-9세 집단 간 배제 조건: $M = 2.13, SD =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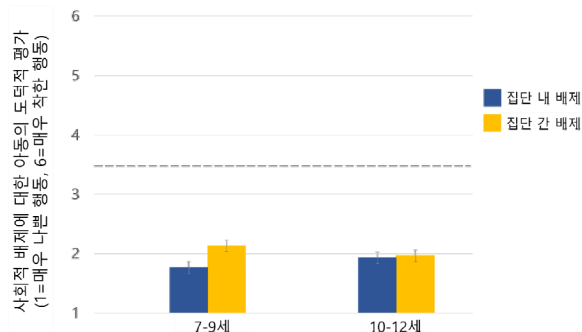


그림 5. 사회적 배제에 대한 아동의 도덕적 평가

$t(29) = -8.70, p < .001$; 10-12세 집단 내 배제 조건: $M = 1.93, SD = 0.79, t(29) = -10.93, p < .001$; 10-12세 집단 간 배제 조건: $M = 1.97, SD = 0.72, t(29) = -11.69, p < .001$).

배제 피해자의 협력성에 대한 추론

배제 피해자의 이전 과제에서의 협력성에 대한 아동의 추론에 대한 연령 집단(7-9세, 10-12세)과 조건(집단 내 배제, 집단 간 배제)의 2 x 2 분산분석 결과,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F(1, 116) = 1.23, p = .269, \eta_p^2 = 0.01$, 연령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116) = 11.11, p = .001, \eta_p^2 = 0.09$. 10-12세 아동들($M = 3.67, SD = 0.19$)은 7-9세 아동들($M = 4.57, SD = 0.19$)보다 피해자가 첫 번째 협력 활동에서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더불어, 연령 집단과 조건의 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116) = 4.40, p = .038, \eta_p^2 = 0.04$.

아동의 배제 피해자에 대한 협력성 추론에 대한 연령 집단에 따른 조건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계획 비교(planned contrasts)를 시행한 결과, 10-12세 집단 내 배제 조건($M = 3.23, S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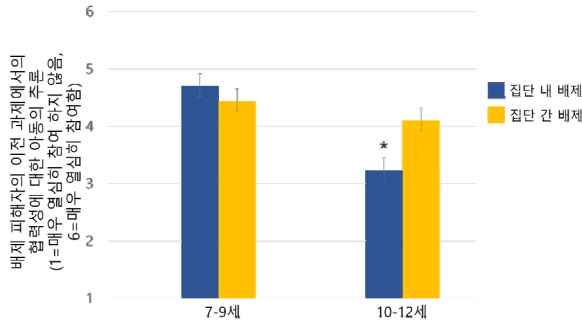


그림 6. 배제 피해자의 협력성에 대한 아동의 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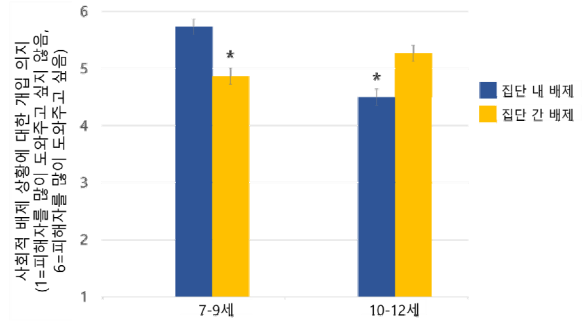


그림 7. 사회적 배제 상황에 대한 개입 의지

1.59)의 아동들은 집단 간 배제 조건($M = 4.10$, $SD = 1.47$)의 아동들보다 배제의 피해자가 어제 수행된 첫 번째 협력 활동인 교실 청소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F(1, 116) = 5.15$, $p = .025$, $\eta_p^2 = 0.04$. 반면, 7-9세의 경우, 아동의 배제 피해자의 협력성에 대한 추론에 있어 집단 내 배제 조건($M = 4.70$, $SD = 1.47$)과 집단 간 배제 조건($M = 4.43$, $SD = 1.38$)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116) = 0.49$, $p = .486$, $\eta_p^2 = 0.00$.

개입 의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아동의 개입 의지에 대한 연령 집단(7-9세, 10-12세)과 조건(집단 내 배제, 집단 간 배제)의 2 x 2 분산분석 결과,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F(1, 116) = 0.08$, $p = .785$, $\eta_p^2 = 0.00$, 연령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116) = 5.18$, $p = .025$, $\eta_p^2 = 0.04$. 7-9세 아동들($M = 5.30$, $SD = 0.13$)은 10-12세 아동들($M = 4.88$, $SD = 0.13$)보다 배제 상황에 더 개입하여 피해자를 돕겠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연령 집단과 조건의 상호작용도 유의하

게 나타났다, $F(1, 116) = 19.89$, $p < .001$, $\eta_p^2 = 0.15$.

연령 집단에 따른 조건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계획 비교(planned contrasts)를 시행한 결과, 7-9세의 경우, 집단 내 배제 조건($M = 5.73$, $SD = 0.58$)의 아동들은 집단 간 배제 조건($M = 4.87$, $SD = 1.28$)의 아동들보다 사회적 배제 상황에 더 개입하고자 하였다, $F(1, 116) = 11.20$, $p = .001$, $\eta_p^2 = 0.09$. 반면, 10-12세의 경우, 어린 아동들과는 반대로 집단 내 배제 조건($M = 4.50$, $SD = 1.14$) 아동들은 집단 간 배제 ($M = 5.27$, $SD = 0.87$)의 아동들보다 사회적 배제 상황에 덜 개입하고자 하였다, $F(1, 116) = 8.76$, $p = .004$, $\eta_p^2 = 0.07$.

피해자의 협력성에 대한 아동들의 추론과 개입 의지 간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수행된 추가 분석 결과, 두 변인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r(119) = .50$, $p < .001$. 이는 아동들이 피해자가 이전 과제에서 더 성실히 협력하였다고 평가할수록 배제 상황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도울 의지를 더 높게 보였음을 의미한다.

논 의

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사회적 배제의 목격자로서 배제에 대해 평가하고, 배제의 정당성에 대해 추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는 만 7-12세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내집단 혹은 외집단으로부터의 배제를 목격한 아동들이 배제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지, 배제의 피해자의 협력성에 대하여 어떻게 추론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제의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지 살펴보았다. 아동들의 이러한 추론에 있어 연령 집단(7-9세, 10-12세)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또한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아동의 도덕적 평가의 결과, 아동들은 연령 집단에 관계 없이 내집단 구성원 그리고 외집단 구성원을 배제하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나쁘게 평가하였다. 이는 아동들이 이미 4-6세 경부터 사회적 배제의 피해자의 부정적 감정을 정확히 추론하고(Song et al., 2015), 배제의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더 선호하며(Hwang & Markson, 2020), 배제 행위를 도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박주향, 진경선, 2021)와 일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성인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배제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내집단 및 외집단 구성원을 배제하는 상황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Rudert et al., 2017).

흥미롭게도 아동들은 집단 내 배제와 집단 간 배제를 동일하게 도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높은 연령 집단의 아동들은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배제되었느냐에 따라 배제 대상의 협력성에 대하여 다르게 추론하였다. 만 7-9세와는 달리, 만 10-12세 아동들은 등장인물이 외집단으로부터 배제될 때

보다 내집단으로부터 배제될 때, 그 인물이 배제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이전 과제에서 덜 협력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러한 10-12세의 결과는 성인들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이 내집단으로부터 배제될 경우, 외집단에게 배제될 때보다 주인공의 협력성을 낮게 평가하고 배제를 처벌적 동기로 귀인한다는 연구 결과(Rudert et al., 2018)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달적 변화, 즉 약 10-12세 경부터 집단 내 배제의 대상은 아마도 집단의 규범을 어겼거나 혹은 집단에 덜 협력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한 가지 가능성으로 학령기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다양한 내·외집단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와 다른 타인 혹은 집단을 배제하거나, 다수 지위(majority)가 소수 지위(minority)를 배제하는 원형적인(prototypical) 배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Spears Brown, 2017; Spears Brown & Bigler, 2004). 아마도 아동들은 양육 및 교육 과정 또는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통하여 이러한 원형적 배제는 차별 또는 편견에 해당하며,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경우처럼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배제, 즉 전형적인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배제의 원인과 속성이 모호해지게 된다. 더군다나, 아주 어린 영아 시기(Bian et al., 2018; Jin & Baillargeon, 2017)부터 아동들은 내집단 구성원은 서로를 돕거나 지지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기대는 아동기(Olson & Spelke, 2008; Rhodes, 2012)에도 일관적으로 관찰된다. 집단 내 배제는 이러한 내집단 지지에 대한 기대가 위반되는 상황이며, 아마도 이

때 아동들은 성인들(Rudert & Greifeneder, 2019)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개인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휴리스틱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 아동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학교 환경을 떠올려보자면, 아동들은 자신의 교실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아동에게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하라는 교육을 종종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험은 아동들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배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때로는 집단에서 문제가 있는 개인을 다루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Rudert et al., 2018). 이와 같이, 아동이 내집단 상호작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내집단의 규범이나 기대를 위반한 특이한 개인(“odd-one-out”)에 대한 배제의 용인을 관찰하는 경험이 함께 결합되어, 아동들은 집단 내 배제의 대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추론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연령을 연속변수로 살펴봄으로써 실제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의 배제에 대한 개입 의지 또한 아동의 배제 피해자의 협력성에 대한 추론과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만 7-9세 아동들은 집단 내 배제 상황에서, 만 10-12세 아동들은 집단 간 배제 상황에서 더 많이 개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배제 대상의 협력성에 대한 추론과 개입 의지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들이 배제의 대상이 기존 협력 과제에서 성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수록 이 대상을 돕고자 하는 개입 의지를 더 적게 보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들이 집단 내 배제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아마도 배제 대상에 대한 부정적 추론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상관 분석에 근거한 결과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 내 배제에서 배제 대상의 협력성, 성실성 등을 실험적으로 조작한 후, 이에 따른 아동들의 개입 의지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입 의지를 구두로만 확인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아동의 이러한 언어적 반응과 실제 개입 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최근 연구는 학령기 아동들이 행동적 과제에서도 집단 간 배제에 비해 집단 내 배제에서 덜 개입함을 밝힌 바 있다. Yüksel 외(2021)의 연구에서 9세와 13세 영국 아동들은 사이버볼 과제에 참여하였고, 집단 간 배제(예, 영국 아동들이 이민자 아동을 배제함) 혹은 집단 내 배제(예, 영국 아동들이 영국 아동을 배제함)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이때, 배제자와 피해자의 집단 지위(다수 vs. 소수 지위)도 함께 조작되어 다수 지위 집단은 영국 아동으로, 소수 지위 집단은 이민자 아동으로 제시되었다. 사이버볼 게임 중 두 명의 배제자가 피해자에게 공을 던지지 않는 것을 목격한 이후, 참가 아동들은 누구에게 공을 던질 것인지 결정할 수 있었다. 참가 아동이 피해자에게 공을 몇 번 던졌는지 계산함으로써 배제에 얼마나 개입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9세 아동들은 집단 간 배제와 집단 내 배제 상황에서 비슷한 정도로 개입하였지만, 13세 아동들은 집단 내 배제보다 집단 간 배제, 그중에서도 다수 집단(영국 아이들)이 소수 지위의 아동(이민자)을 배제하였을 때 가장 높은 개입 행동을 보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동적 반응을 측정하는 패러다임을 함께 활용하여 아동들의 배제 대상에 대한 평가와 개입 의지 간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들이 상호작용의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최소 집단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실험적 설계를 통해 아동들이 매우 간략한 가상의 시나리오만으로도 집단 내 배제와 집단 간 배제 상황에 대해 다른 추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아동의 내집단과 외집단에서 일어나는 배제에 대한 아동들의 추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추후 연구의 주제로는 아동들이 집단 내 배제의 피해자에 대하여 협력성 이외의 개인적 특징에 대해서도 부정적 추론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과제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시나리오상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아동들이 집단 내 배제의 대상이 집단 간 배제의 대상에 비해 이전 과제에서 덜 성실하게 행동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 과제의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아동들이 집단 내 배제의 대상 인물의 다른 개인적 속성(예, 성격, 매력, 학업 성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추론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집단 내 배제에 대해 아동들이 가질 수 있는 인지적 편향의 범위를 밝히는 연구는 아동기 따돌림을 줄이는 교육 방안 설계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박주향, 진경선 (2021). 학령전기 아동의 내집단 배제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4), 91-108.
<https://doi.org/10.35574/KJDP.2021.12.34.4.91>
- Abrams, D., & Killen, M. (2014). Social exclusion of children: Developmental origins of prejudice. *Journal of Social Issues*, 70(1), 1-11.
<https://doi.org/10.1111/josi.12043>
- Abrams, D., & Rutland, A. (2008). The development of subjective group dynamics. In S. Levy & M. Killen (Eds.), *Intergroup relations: An integrative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pp. 47-65). Oxford University Press.
- Abrams, D., Rutland, A., & Cameron, L. (2003). The development of subjective group dynamics: Children's judgments of normative and deviant in-group and out-group individuals. *Child Development*, 74(6), 1840-1856.
<https://doi.org/10.1046/j.1467-8624.2003.00641.x>
- Arslan, G. (2018). Social exclusi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t school: A study of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 *Child Indicators Research*, 11, 897-918.
<https://doi.org/10.1007/s12187-017-9451-1>

- Bian, L., Sloane, S., & Baillargeon, R. (2018). Infants expect ingroup support to override fairness when resources are lim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5*(11), 2705-2710. <https://doi.org/10.1073/pnas.1719445115>
- Brenick, A., & Killen, M. (2014). Moral judgments about Jewish-Arab intergroup exclusion: The role of cultural identity and contact. *Developmental Psychology*, *50*(1), 86-99. <https://doi.org/10.1037/a0034702>
- Brenick, A., & Romano, K. (2016). Perceived peer and parent out-group norms, cultural identity, and adolescents' reasoning about peer intergroup exclusion. *Child Development*, *87*(5), 1392-1408. <https://doi.org/10.1111/cdev.12594>
- Buhs, E. S., Ladd, G. W., & Herald, S. L. (2006). Peer exclusion and victimization: Processes that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peer group rejection and children's classroom engagement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1), 1-13. <https://doi.org/10.1037/0022-0663.98.1.1>
- Burkholder, A. R., Elenbaas, L., & Killen, M. (2020). Children's and adolescents' evaluations of intergroup exclusion in interracial and interwealth peer contexts. *Child Development*, *91*(2), e512-e527. <https://doi.org/10.1111/cdev.13249>
- Chekroun, P., & Brauer, M. (2002). The bystander effect and social control behavio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others on people's reactions to norm viol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6), 853-867. <https://doi.org/10.1002/ejsp.126>
- Crystal, D. S., Killen, M., & Ruck, M. D. (2008). It is who you know that counts: Intergroup contact and judgments about race-based exclus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51-70. <https://doi.org/10.1348/026151007X198910>
- Dunham, Y., Baron, A. S., & Carey, S. (2011). Consequences of "minimal" group affiliation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82*(3), 793-811.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1.01577.x>
- Eck, J., Schoel, C., & Greifeneder, R. (2016). Coping with or buffering against the negative impact of social exclusion on basic needs: A review of strategies. In P. Riva & J. Eck (Eds.), *Social exclusion: Psychologic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nd reducing its impact* (pp. 227-251). New York, NY: Springer.
- Elenbaas, L. (2019). Young children's reasoning about equality and ownership in resource conflicts. *Cognitive Development*, *52*(2019), 100808. <https://doi.org/10.1016/j.cogdev.2019.100808>

- Elenbaas, L., & Killen, M. (2016). Children rectify inequalities for disadvantaged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52*(8), 1318-1329.
<https://doi.org/10.1037/dev0000154>
- Fischer, P., Krueger, J. I., Greitemeyer, T., Vogrincic, C., Kastenmüller, A., Frey, D., Heene, M., Wicher, M., & Kainbacher, M. (2011). The bystander-effect: A meta-analytic review on bystander intervention in dangerous and non-dangerous emergencies. *Psychological Bulletin, 137*(4), 517-537.
<https://doi.org/10.1037/a0023304>
- Hawes, D. J., Zadro, L., Fink, E., Richardson, R., O'Moore, K., Griffiths, B., ... Williams, K. D. (2012). The effects of peer ostracism on children's cognitive processe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5), 599-613.
<https://doi.org/10.1080/17405629.2011.638815>
- Hitti, A., Mulvey, K. L., Rutland, A., Abrams, D., & Killen, M. (2014). When is it okay to exclude a member of the ingroup? Children's and adolescents' social reasoning. *Social Development, 23*(3), 451-469.
<https://doi.org/10.1111/sode.12047>
- Hwang, H. G., & Markson, L. (2020). The development of social exclusion detection in early childhood: Awareness of social exclusion does not always align with social preference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21*(2), 166-190.
<https://doi.org/10.1080/15248372.2019.1706521>
- Hwang, H. G., Marrus, N., Irvin, K., & Markson, L. (2017). Three-year-old children detect social exclusion in third-party interaction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8*(5), 515-529.
<https://doi.org/10.1080/15248372.2017.1368517>
- Jin, K., & Baillargeon, R. (2017). Infants possess an abstract expectation of ingroup suppor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31), 8199-8204.
<https://doi.org/10.1073/pnas.1706286114>
- Killen, M., Mulvey, K. L., & Hitti, A. (2013). Social exclusion in childhood: A developmental intergroup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84*(3), 772-790.
<https://doi.org/10.1111/cdev.12012>
- Killen, M., & Rutland, A. (2011). *Children and social exclusion: Morality, prejudice, and group identity*. John Wiley & Sons.
- Killen, M., Rutland, A., Abrams, D., Mulvey, K. L., & Hitti, A. (2013). Development of intra- and intergroup judgments in the context of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norms. *Child Development, 84*(3), 1063-1080. <https://doi.org/10.1111/cdev.12011>
- Killen, M., Rutland, A., & Jampol, N. S.

- (2011). Social exclu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K. H. Rubin, W. M. Bukowski, & B. Laursen (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pp. 249-266). Guilford Press.
- Killen, M., Rutland, A., Rizzo, M. T., & McGuire, L. (2018). Intergroup exclusion, moral judgments, and social cognition. In W. M. Bukowski, B. Laursen, & K. H. Rubin (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pp. 470-487). The Guilford Press.
- Killen, M., & Stangor, C. (2001). Children's social reasoning about inclusion and exclusion in gender and race peer group contexts. *Child Development, 72*(1), 174-186.
<https://doi.org/10.1111/1467-8624.00272>
- Latané, B., & Darley, J. M. (1969). Bystander "apathy". *American Scientist, 57*(2), 244-268.
<https://www.jstor.org/stable/27828530>
- Malti, T., Killen, M., & Gasser, L. (2012). Social judgments and emotion attributions about exclusion in Switzerland. *Child Development, 83*(2), 697-711.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1.01705.x>
- Marinović, V., Wahl, S., & Träuble, B. (2017). "Next to you"-Young children sit closer to a person following vicarious ostracism.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56*, 179-185.
<https://doi.org/10.1016/j.jecp.2016.11.011>
- Mulvey, K. L., Hitti, A., Rutland, A., Abrams, D., & Killen, M. (2014). Context differences in children's ingroup pre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50*(5), 1507-1519.
<https://doi.org/10.1037/a0035593>
- Mulvey, K. L., Palmer, S. B., & Abrams, D. (2016). Race-based humor and peer group dynamics in adolescence: Bystander intervention and social exclusion. *Child Development, 87*(5), 1379-1391.
<https://doi.org/10.1111/cdev.12600>
- Nesdale, D. (2008). Peer group rejection and children's intergroup prejudice. In S. R. Levy & M. Killen (Eds.),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in childhood through adulthood* (pp. 32-46). Oxford University Press.
- Nesdale, D., & Lawson, M. J. (2011). Social groups and children's intergroup attitudes: Can school norms moderate the effects of social group norms?. *Child Development, 82*(5), 1594-1606.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1.01637.x>
- Olson, K. R., & Spelke, E. S. (2008). Foundations of cooperation in young children. *Cognition, 108*(1), 222-231.
<https://doi.org/10.1016/j.cognition.2007.12.003>
- Over, H., & Carpenter, M. (2009). Priming third party ostracism increases affiliative

- imitation in children. *Developmental Science*, 12(3), F1-F8.
<https://doi.org/10.1111/j.1467-7687.2008.00820.x>
- Park, J. H., & Jin, K. (2022). The sense of belonging reduces ingroup favoritism in children. *Frontiers in Psychology*, 13, 1059415.
<https://doi.org/10.3389/fpsyg.2022.1059415>
- Rhodes, M. (2012). Naïve theories of social groups. *Child Development*, 83(6), 1900-1916.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2.01835.x>
- Rizzo, M. T., Elenbaas, L., Cooley, S., & Killen, M. (2016). Children's recognition of fairness and others' welfare in a resource allocation task: Age related cha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52(8), 1307-1317.
<https://doi.org/10.1037/dev0000134>
- Rizzo, M. T., Elenbaas, L., & Vanderbilt, K. E. (2020). Do children distinguish between resource inequalities with individual versus structural origins?. *Child Development*, 91(2), 439-455.
<https://doi.org/10.1111/cdev.13181>
- Rudert, S. C., & Greifeneder, R. (2019). Observing ostracism: How observers interpret and respond to ostracism situations. In S. C. Rudert, R. Greifeneder, & K. D. Williams (Eds.), *Current directions in ostracism, social exclusion, and rejection research* (1st ed., pp. 136-154). Routledge.
- Rudert, S. C., Reutner, L., Greifeneder, R., & Walker, M. (2017). Faced with exclusion: Perceived facial warmth and competence influence moral judgments of social exclu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8(2017), 101-112.
<https://doi.org/10.1016/j.jesp.2016.06.005>
- Rudert, S. C., Sutter, D., Corrodi, V. C., & Greifeneder, R. (2018). Who's to blame? Dissimilarity as a cue in moral judgments of observed ostracism episo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5(1), 31-53.
<https://doi.org/10.1037/pspa0000122>
- Rutland, A., & Killen, M. (2015). A developmental science approach to reducing prejudice and social exclusion: Intergroup processes, social-cognitive development, and moral reasoning.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9(1), 121-154.
<https://doi.org/10.1111/sipr.12012>
- Rutland, A., Palmer, S. B., Yüksel, A. S., & Grütter, J. (2022). Social exclusion: The interplay between morality and group processe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219-235). Routledge.
- Shutts, K., Brey, E. L., Dornbusch, L. A., Slywotzky, N., & Olson, K. R. (2016). Children use wealth cues to evaluate others. *PloS One*, 11(3), e0149360.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49360>

360

- Song, R., Over, H., & Carpenter, M. (2015). Children draw more affiliative pictures following priming with third-party ostracism. *Developmental Psychology, 51*(6), 831-840.
<https://doi.org/10.1037/a0039176>
- Spears Brown, C. (2017). Perceptions of intergroup discrimination. In A. Rutland, D. Nesdale, & C. S. Brown (Eds.), *The Wiley handbook of group process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269-291). John Wiley & Sons.
- Spears Brown, C., & Bigler, R. S. (2004). Children's Perceptions of Gender Discrimin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0*(5), 714-726.
<https://doi.org/10.1037/0012-1649.40.5.714>
- Williams, K. D. (2009). Ostracism: A temporal need threat model.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275-314.
[https://doi.org/10.1016/S0065-2601\(08\)00406-1](https://doi.org/10.1016/S0065-2601(08)00406-1)
- Yang, X., & Dunham, Y. (2022). Emerging complexity in children's conceptualization of the wealthy and the poor. *Developmental Science, 25*(4), e13225.
<https://doi.org/10.1111/desc.13225>
- Yüksel, A. S., Palmer, S. B., & Rutland, A. (2021).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bystander behavior toward intergroup and intragroup exclu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7*(8), 1342-1349.
<https://doi.org/10.1037/dev0001202>

Children's reasoning about intragroup and intergroup exclusion

Seoin Lee¹

Kyong-sun Jin²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²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hildren aged 7-12 ($N = 120$) infer about intra- and inter-group exclusion. Children heard a scenario in which a child was engaged in a cooperative activity with two peers from either their group or a different group, but then was excluded from future cooperation by the peers. Children's moral evaluations of the exclusion, inferences about the cooperation of the excluded child, and willingness to intervene were assess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children, regardless of age, evaluated both exclusions as morally wrong. Children aged 10-12 inferred that the target of intragroup exclusion would be less cooperative than intergroup and were less willing to help in intragroup than intergroup ex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ildren as young as 10-12 years old negatively assess the target of intragroup exclusion and exhibit a lower willingness to intervene compared to intergroup exclusion.

Keywords : social exclusion, intragroup exclusion, intergroup exclusion, children, moral development